



소

소비없어 가격하락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올고 싶은데,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한단계 상승해 배 있는 부분까지 수준이 가능해진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어졌다. 이로 인한 여파는 벌써 나타났다. 산지 우시장에서 송아지 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거래 물량도 많이 줄었다. 답답하기만하다. 상당기간 소값이 안정돼 사육 마리수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농가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고 앞서서 실망만 하기에는 지남껏 부자한 시간과 자본이 너무 아깝다. 방법은 있다. 한미 FTA가 체결 되었다고 바로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5년이라는 시간과 아직 발효도 되지 않아 그 이상의 시간이 있다. 또한 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입이 되는건 아니다. 빨리야 7월 이후에나 미국산 쇠고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저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지남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지나친 불안감으로 준하물량이 몰리지만 않는다면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쇠고기의 소비 증가를 기대할 만한 요인이 없어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계획된 업식과 신중한 출하로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돼지

약보합세 유지

돼지는 겨울에 여러 질병들과 싸우면서 간신히 버티온 농가들이 한미 FTA 체결이라는 강편지를 맞았다. 예전부터 이 시기는 겨울내 움주렸던 소비가 날씨와 함께 살아나는 시기인데도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답답한 소리만 들린다. 예년에 비해 도축두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일선 육가공업체에서는 제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단다. 이유는 한가지 돼지고기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07년 1월과 2월 두달간 수입된 물량이 5만3천톤을 넘는 규모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소비가 살아나도 일선 식당에선 국내산 돼지고기 보단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선호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한 원인으로 앞으로 국내의 소비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국내산 돼지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농가의 사육두수 증가와 출하 및 도축두수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에 수입 둔육까지 합세하여 공급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는 답보 상태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농가의 시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중순 이후 야외 환풍이 증가하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트뉴스 제공>